

총 66건 중 74%는 아직 손도 못 대

(49건)

류정화 기자 ih.insight@joongang.co.kr

지난 7월 3일, 정부 과전청사 미래창조과학부 회의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염홍철 대전시장,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은 기초과학연구원을 시 소유인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입주시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그러자 몇 시간 뒤 대전·충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협약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충북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MOU를 체결하며 과학벨트 수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기초과학 연구에 최적화된 단지를 만들려던 국책사업을 지역발전 사업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했다. 미래부와 대전시의 MOU 체결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대립만 증폭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달랐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과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갈등 과제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벨트 문제를 ‘이미 갈등이 해소된 사안’으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17건만 올해 내 해결 목표

‘해소’ 분류 후 갈등 지속도
“관료끼리 탁상공론만 말고 현장·전문가 목소리 들어야”

박근혜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66개 주요 갈등 과제를 선정해 발표한 뒤 관리해 왔다. 그런데 이 중 6개 갈등 해소 사안에 논란이 여전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포함시킨 것이다. 정부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 문제도 “갈등이 해소됐다”고 규정했다.

중앙SUNDAY가 두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부의 현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지난 6월 달 동안 66개 갈등 과제 가운데 49개 과제(74.2%)에 대해 손도 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개 과제도 ‘연내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움직임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팔짱만 끼

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모든 과제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17개 집중관리 과제의 연내 해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갈등 과제를 발표할 당시 “현재 진행 중인 갈등 과제는 가급적 연내에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던 것과 상반된다.

정부의 갈등 처리가 부실한 원인으로서는 먼저 해당 부처들의 탁상행정이 지적된다. 과학벨트 부지 매입건의 경우 국무조정실은 미래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관계자는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합의로 해결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50~70%가 과학벨트 수정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중요한 국책사업인데도 MOU 체결 과정에서 과학 전문가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안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갈등 해소’로 분류한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을 빼곤 다른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고관일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의견조율만으로 갈등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국방부 관계자조차 “국무조정실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계속 갈등 과제로 두고 모니터링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쇄,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 역시 현장에서 해당 기관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무조정실은 ‘갈등 완화’ 사안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홍지만 의원은 “관료나 공무원들끼리 모여 갈등이 해소됐다고 공문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해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무조정실의 인원도 적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현실에서 모든 부처의 갈등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청와대가 힘을 실어줘 인력과 예산을 늘려주되 갈등 관리에 실패하는 해당 부처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3p



SMagazine

설치작가 양혜규 향신료의 예술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대표였던 양혜규(42)는 공간을 다루는 작가다. 블라인드·전구·방울 등을 이용한 설치작업은 보는 이에게 각자의 일상과 과거의 추억이 전시 현장의 느낌과 뒤섞이게 되는 묘한 체험을 제공한다. 그런 그가 싱가포르 타일러 프린트 인스티튜트에서는 색다른 종이 작업에 도전했다.

1부 1000원 / 월 5000원 | 정기구독 문의·고객센터 080-023-5005

박근혜 정부... 임종근과 최희갑 등

서유럽 순방 전 르피가로 인터뷰... 어제 오후 출국

강찬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프랑스·영국·벨기에 순방을 위해 6박8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2~4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4~7일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민 초청으로 영국을 찾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고 여왕 주최 국민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7일엔 벨기에에서 엘리오 디뤼포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한 뒤, 8일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를 방문해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 반쯤피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은 유럽 국가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교역·투자 확대와 창조 경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일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와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며 “그러나 일회성 행사로 그쳐선 안 되고, (정상회담) 결과가 없어서도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알림

중앙SUNDAY 아이폰으로 보세요

한 달간 무료... 안드로이드용 이달 중 서비스

●지난 1월 태블릿PC용 디지털 에디션을 출시한 중앙SUNDAY가 아이폰(iPhone) 버전을 선보입니다. 중앙SUNDAY의 다양한 기사·칼럼에 디지털 에디션만의 콘텐츠를 더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구독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환경에 최적화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나 뉴스가판대에서 '중앙SUNDAY'를 검색해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디지털 에디션은 11월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태블릿PC용 버전은 유·무료 두 개로 나뉘어 발행되며 유료 버전은 1부 0.99달러, 1개월 2.99달러입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안드로이드 계열에 대해선 11월 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